

# 身體布施 本生譚의 유교적 專有와 인식의 변화

이유라\*

## 〈目 次〉

1. 들어가며
2. 신체보시 본생담의 서사적 특징
3. 신체보시 본생담의 유교적 전유
4. 석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지식의 형성
5. 나오며

## 1. 들어가며

本生譚 또는 本生故事는 Jataka의 譯語로, 석가의 전생에 관한 설화를 지칭한다. 자타키는 '태어난 것에 관한' 정도로 해석되지만 불교 경전에서는 현재의 생을 일으킨 전생의 善行 이야기를 의미한다. 불교설화<sup>1)</sup>의 대부분이 석가와 관련된 것이지만 그 중 본생담은 가장 중요한 설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윤회와 성불의 관계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기 때문이다. 본생담은 고대 인도의 口碑傳承談을 토대삼아 석가의 전생을 담아냈다. 전생은 물리적인 시공간이 아닌, 종교적으로 설정된 가상의 세계이고, 일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는 설화, 소설 등 환상문학의 형식으로 표현되기 쉽다. 환상은 불가해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유력

\*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강사

1) 불교 설화는 ①석가의 출생에서부터 성불까지의 전기를 다룬 이야기(佛傳), ②석가가 중생을 교화하는 이야기(因緣), ③석가의 전생을 다룬 이야기(本生), ④불교사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다룬 이야기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본생담은 불교의 윤회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도 했지만 출가한 지 6년 만에 성불한 석가의 행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한 방식인데 이때 환상이 취하는 언어적 형식은 주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sup>2)</sup> 다른 불교설화들이 석가의 언행과 불교사적 주요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음을 상기에 볼 때 본생담은 일종의 환상이야기로 구별될 수 있으며 이는 본생담을 종교적 磁場을 벗어나 독립된 이야기로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생담은 전생의 석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선을 행하면 결국 성불하게 된다는 주제를 일관적으로 제시한다. 선행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布施의 형태로 실천되며 재물, 지위, 가족, 자기 자신 등과 같이 일반인들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다. 그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해하여 동물이나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궁극의 자기희생이라 할 수 있다.

살을 보시하는 본생담은 그 수가 상당하며 중국으로 전래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양상을 보인다. 인간의 삶과 그것의 섭취에 관한 이야기는 살인이라는 금기로 인해 보편적으로 존재해 왔다. 창조신화, 복수 이야기, 인신공희 등 다양한 살인과 食人 이야기가 그것이다. 불교 유입 이전에도 중국에는 신체보시와 유사한 형태의 식인 이야기가 존재했다. 介子推는 晉文公이 公子였던 시절에 자신의 허벅다리를 베어 내어 배고픈 진문공에게 고깃국을 끓여 올렸고 배신한 신하나 적장의 몸을 젓갈로 만들어 먹은 예는 正史에 다수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신체보시 본생담이 중국에 전래된 이후 중국에서는 부모의 증환을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살을 베어내는 효자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후 이러한 割股<sup>3)</sup>故事는 본격적으로 재생산되었고 이야기의 영역을 초월하여 현실에서 유교 孝行으로 재현되었다. 주목할 점은 신체보시 본생담 유입 이전에는 부모를 위해 자신의 살을 잘라내는 자식의 孝行譚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식인, 폭력 등 原古의 야만 행위가 후대에 문화적 轉型을 이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찍이 정재서 교수가 비교신화학적 차원에서 식인 스토리의 기

2) 정재서, 「道敎 說話의 政治的 專有와 民族 正體性 - 韓·中·日 3國의 경우」, 『도교문화연구』 31집, 2009, 11쪽.

3) 할고는 문자 그대로 허벅다리를 베어내는 것이다. 초기의 할고 고사들이 허벅지 살을 취했기 때문에 이름 붙여졌지만 후대에 어깨, 팔뚝, 간, 쓸개, 눈 등을 베어내거나 도려내는 행위도 할고로 명명했다.

독교 聖餐式, 유교 효행으로의 變容<sup>4)</sup> 혹은 女兒 희생과 효의 성립<sup>5)</sup> 등에 대해 논구한 바 있다. 신체보시 본생담과 할고와의 관계에 집중한 연구는 그간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金寶祥은 지배 계층이 불교 捨身 寓言을 통치목적의 선전물로 활용함으로써 할고 효행담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sup>6)</sup> 南愷時는 고대 인도와 중국의 할고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지적하며 중국의 할고효행담이 본생담에서 기원했음을 논의했다.<sup>7)</sup> 한편 呂昂은 할고효행담이 불교의 報恩사상이 중국화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는데, 그 과정에 대한 논의가 다소 도식적인 인상을 준다.<sup>8)</sup> 이 밖에 할고와 관련된 논문은 불교의 영향으로 할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동의하고 관련 고사나 사례 자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sup>9)</sup>

본고는 이러한 선행 가설과 선행 연구를 유념하면서 보다 중국 내부의 문화적 변동을 穿鑿하여 크게는 三教合一, 작게는 儒佛 褶疊의 思潮 속에서 신체보시 본생담이 중국에 전래되고 그것이 특별한 이야기로 수용된 과정과 까닭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전유의 과정에서 고대 중국인의 식인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급기야 지배문화의 한 행위로 轉變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신체보시 본생담의 서사적 특징

소승불교의 주요 경전인 『小部經典』은 총 547개의 전생 이야기를 팔리어<sup>10)</sup>로 기록하고 있다. 漢文으로 번역된 본생담은 『六度集經』<sup>11)</sup>, 『生經』<sup>12)</sup>, 『賢愚

4) 정재서, 「동서양 창조신화의 문화적 변용 비교연구」, 『중국어문학지』 17집, 2005. 참조.

5) 정재서, 「동아시아 문화담론과 성: 효녀서사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32집, 2002. 참조.

6) 金寶祥, 「和印度佛教寓言有關的兩件唐代風俗」, 『西北師大學報』 第一期, 1958.

7) 南愷時, 「中國的割股奉親: 絲綢之路的舶來品?」, 『中國俗文化研究』 第一期, 2017.

8) 呂昂, 「從捨身本生看佛教倫理中國化——以大方便佛報恩經爲例」, 『五台山研究』 第125期, 2000.

9) 임명옥, 「中國 割股 孝行故事 小考」, 『中國學論叢』 Vol.9, 2000. 조남욱, 「儒家 孝論과 肉身 孝行의 問題」, 『儒教思想研究』 Vol.37, 2009. 등의 논의가 있고 국외에는 역사학의 관점에서 논의된 논문이 대다수다.

10) 인도의 고대어로 인도 중부지방의 언어를 기초로 한다. 기원전 2세기부터 2세기까지 발달했고 소승불교의 경전이 대부분 팔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經』<sup>13)</sup> 등에 기록되어 있는데, 『육도집경』과 『생경』을 기점으로 후대에 편집, 재창작된 본생담 문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본고에서 논의할 신체보시 본생담 역시 이들 원전을 바탕으로 한다.

신체보시 본생담에서 석가는 벌레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인간일 때는 상인, 태자, 왕 등과 같은 신분으로 자주 등장한다. 석가가 동물일 경우에도 사슴왕, 물고기왕, 토끼왕, 원숭이왕 등과 같이 동물 무리의 우두머리로 자주 설정된다. 이는 재물, 권력 등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많은 신분이 모든 것을 희생했을 때의 충격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적인 측면에서 신체보시 본생담은 과도할 정도의 잔혹한 묘사를 추구한다. 이는 고대 인도 북부의 문화적 특징, 즉 칼, 절단 등과와의 친숙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sup>14)</sup>

예전에 보살이 큰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이름은 살바달(薩波達)이었다. .....비둘기가 잽싸게 날아와 발밑으로 들어가서는 떨면서 말했다. “대왕님 살려 주십시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말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살려 주겠다.” 매가 곧 뒤쫓아 와서 왕을 향하여 말하였다. “나

- 11) 康居國 출신의 뭇나라 學僧 康僧會가 251~280년에 편찬하였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본생고사집이다. 산스크리트어 원전은 전하지 않아 강승희가 기존 한역 경전과 팔리어 경전을 바탕으로 번역과 편집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육도집경』은 8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91편의 고사를 수록하고 있다. 목차를 살펴보았을 때 ‘본생’이 들어가는 제목을 가진 고사가 57편이고 ‘본생’이 부제로 들어가 있는 것이 25편이다. 거의 대부분의 고사가 본생고사인 셈이다. 고사는 보시와 인내를 주제로 삼아 대승불교의 중심이 되는 菩薩行을 강조하고 있다.
- 12) 西晉 시기 敦煌 高僧인 竺法護가 285년에 한역했는데, 『本生經』으로도 일컫는다. 불교 경전 三藏은 12가지 주제(長行, 重頌, 孤起, 譬喻, 因緣, 無問自說, 本生, 本事, 未曾有, 方廣, 論議, 授記)로 분류되는데, 그 중 하나가 ‘本生’이다. 이로 인해 『생경』 또는 『본생경』이 불교경전의 하위주제로 혼동되기도 한다. 『생경』은 총 5권으로, 55편의 본생고사를 전하고 있다. 『육도집경』과 마찬가지로 전생의 석가가 보살의 도를 행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몇몇 부처의 제자에 관한 전생 이야기도 수록하고 있다.
- 13) 『현우경』 또는 『賢愚因緣經』은 445년 北魏 慧覺 등 8인이 서역 于闐國(타클라마칸 사막 남서쪽에 위치했던 고대 중앙아시아 국가)에 가 三藏法師에게 들은 설법을 기록, 번역한 것으로, 주로 因緣 고사를 다루고 있다. 13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2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연고사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본생고사도 수록하고 있다.
- 14) 南愷時, 「中國의 割股奉親: 絲綢之路의 舶來品?」, 『中國俗文化研究』 第一期, 2017, 46쪽.

의 비둘기가 이리로 왔는데, 비둘기는 나의 밥이니, 원컨대 왕께서는 돌려 주시오.” 왕이 말했다. “비둘기가 와서 목숨을 부탁하여서 이미 그 청을 받아들였다. 내가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기에 어길 수가 없구나. 네가 구태여 고기를 구한다면 만족할 수 있게 백 배 무게의 고기를 주마.” 매가 말했다. “.....왕께서 몸의 살을 베어서 비둘기와 같은 양만큼 주신다면 내가 흔연히 받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좋다.” 그리고는 곧 스스로 넓적다리의 살을 베어 무게를 달아 비둘기의 무게와 같게 하려 하였다. 비둘기의 무게가 왕의 무게보다 많아 계속 살을 베어냈으나 비둘기 무게가 왕의 것보다 무거웠다. 몸의 살을 다 베어냈지만 무게는 같아지지 않았다. 상처의 고통이 극심했지만 왕은 인자함으로 참으며 비둘기를 살리기만을 원했기에 가까이의 신하에게 명하였다. “빨리 나를 죽여 골수를 달아서 비둘기의 무게와 같게 하라.”<sup>15)</sup>

왕이 자신의 허벅지 살을 스스로 베어내는 부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그로테스크하다. 그러나 왕의 차분한 말투와 고통 따위는 선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태도가 잔혹한 폭력성을 덮어 버리면서 이질적인 두 인상은 묘하게 공존해 나간다. 이 기묘한 느낌은 신체보시의 대상이 비둘기라는 점에서 증폭된다. 또한 골수와 같은 구체적인 신체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발동시킨다. 과도할 정도의 잔혹한 묘사는 감상자가 충격에서 헤어 나오는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얻게끔 유도한다. 신의를 지키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육신과 생명을 흔쾌히 내어 놓는 것을 흠으로 상정한 불교 사상의 근본을 흡인력 있는 이야기를 통해 풀어내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사신 본생담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須闍提<sup>16)</sup>太子 본생고사는 『현우경』, 『大方便佛報恩經』, 『雜寶藏經』, 『菩薩本生鬘經』에 수록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로 도움을 청하고자 길을 떠난 왕 부부와

15) 昔者菩薩爲大國王，號薩波達。……鴿疾飛趣於王足下。恐怖而云，大王哀我，吾命劣矣。王曰，莫恐莫恐吾今活汝。鷹尋後至，向王說曰，吾鴿爾來，鴿是吾食，願王相還。王曰，鴿來以命相歸，已受其歸。吾言守信終始無違。爾苟得肉吾自足爾令重百倍。應曰，……割王肌肉令與鴿等，吾欣而受之。王曰，大善，卽自割脾肉秤之令與鴿重等。鴿踰自重自割如斯。身肉都盡未與重等，身瘡之痛其爲無量。王以慈忍心願鴿活。又命近臣曰，爾疾殺我秤髓令與鴿重等。浦正信注，『六度集經』，成都：巴蜀書局，2001. 본고의 『육도집경』 원문 번역은 모두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https://abc.dongguk.edu/>)을 참고했음.

16) 須闍提는 산스크리트어 Sujāti를 음역한 것이다. 이후 수자티로 표기한다.

그 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길을 잘못 들어 준비한 식량이 떨어지자 왕인 아버지가 왕후인 어머니를 죽여 연명하고자 했다. 아들인 수자티가 아버지를 저지 하면서 자신을 고기로 삼아 목숨을 보전할 것을 청한다.

“저를 단번에 죽이지 마시고 조금씩 베어 드십시오. 그러면 수일은 지낼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제가 명이 끊어진다면 고기가 썩어버릴 테고 오래 버틸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부모는 아들의 살을 베어내려고 했고 큰 소리로 울면서 괴로워했다. 그리고는 고기를 베어 먹었다. 날마다 베어 먹었다. 살점을 다 베어내자 뼈만 남게 되었다.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기에 배고픔이 더욱 심해졌다. 아버지가 다시 칼을 들어 관절을 해체한 다음 벗겨내니 약간의 살점을 얻을 수 있었다. 부모가 그를 버리고 떠나야 할 때가 되자 아들은 혼자 생각했다. “내 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부모님이 내게 약간의 남은 살점을 남겨주어 보시를 더 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부모는 아들의 뜻대로 남은 살점을 삼등분 하여 두 등분은 자신들이 먹고 남은 분량과 살점 부스러기, 눈, 혀 등을 모두 아들에게 주고는 떠났다.<sup>17)</sup>

수자티 본생고사는 비둘기에게 보시한 살바달 왕의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인 전개를 보여준다. 아버지가 아들의 살점을 잘라 먹고 뼈에 붙은 살까지 벗겨 먹는 부분은 잔인하고 기괴하다. 본인의 살로 부모를 봉양한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아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남은 살을 알뜰히 모아 나눠 가지자고 제안한다. 심지어 아들 몫의 살은 또 다른 보시를 위한 것이다. 이토록 잔인하고 극단적인 자기희생을 공들여 기록한 까닭은 무엇일까? 자기희생의 궁극을 보여주며 이 정도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자만이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하기 위함이었지만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묘사와 잔혹한 장면이 필요한 것일까?

17) 憐愛其子，欲殺其婦，而欲自濟并用活兒，令婦在前擔兒而行，於後撥刀欲殺其婦。時兒回顧，見父撥刀殺其母，兒便叉手，曉父王言，唯願大王，寧殺我身，勿害我母。殷勤諫父，救其墓命，而語父言，莫絕殺我，稍割食之，可經數日，若斷我命，肉便臭爛，不可經久。於是父母，欲割兒肉，啼哭懊惱，而割食之，日日割食，其肉稍盡，唯有骨在。未至他國，飢荒遂甚，父復捉刀，於其節解，次第割之，而得少肉，於是父母，臨當棄去，兒自思惟，我命少在，唯願父母，向所有肉，可以少許還用見施。父母不違，卽作三分，二分自食，余有一分，并殘肌肉眼舌之等悉以施之，於是別去。浦正信 注，《六度集經》，成都：巴蜀書局，2001。

질문에 대한 답은 이야기 본연의 특성에서 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547편의 본생고사 가운데 신체를 보시하는 이야기가 유독 뇌리에 오래 남는 이유는 불교 교리를 떠나 이야기로서의 본생담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독한 그로테스크함, 이토록 잔혹하지만 상냥한 의도의 폭력성, 피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야기에서 스며 나오는 선홍빛 이미지들, 무엇보다 식인이라는 보편적 금기를 태연하게 파괴하는 모티프 등이 모든 것들은 독자에게 붉은 피보다도 더 선명하고 강렬하게 다가온다.

키질 벽화나 돈황 벽화의 신체보시 本生圖는 살점을 베어내는 그 순간을 재현한 것이 많다. 노출된 살, 칼, 튀기는 피가 세밀하게 잘 묘사된 것도 상당수다. 연작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 벽면에 표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한두 개의 벽에 하나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신체보시 본생담 중 하나의 장면만을 그려 넣을 수 있다면 단연 몸을 내어주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벽화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고상하고 엄중한 표현을 지양하고 생생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마다하지 않았다. 적나라한 폭력의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이야기와 벽화 모두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다. 잔혹한 서사 장치들이 본능적인 공포와 금기 위반에 대한 무의식적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사 전통은 후대의 불교문학에까지 이어져 본생담 역서는 물론이고 불교 관련 고사를 다룬 저서에까지 확장된다. 『高僧傳』에 기록된 法進 스님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자신을 고기로 먹을 것을 제안한다. 사람들이 차마 행동에 옮기지 못하자 스님은 칼과 소금을 달라고 하여 스스로 살을 베어내고 소금을 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sup>18)</sup> 이와 같은 일련의 서술 스타일은 보살행의 강조라는 일차적 목적을 위해 복무하지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살인, 식인과 같은 금기에 대한 위반의 욕망을 작동시킨다. 동시에 보시와 인내라는 덕목으로 포장해 줌으로써 독자들에게 안전한 일탈을 보장한다.

인도의 뿌루샤(Purusa)와 바빌로니아의 티아맛(Tiamat)은 모두 거인시체화생 신화의 주인공으로, 몸이 절단당한 뒤 우주의 각 부분으로 변화된다. 리 태너힐은 식인 행위의 모델이 티아맛 신화 등 거인시체화생 신화에 있다고 단언했고,<sup>19)</sup>

18) 慧皎, 湯用彤校注, 『高僧傳』, 北京: 中華書局, 1992, 447쪽.

19) Reay Tannahill, *Flesh and Blood: A History of Cannibal Complex*, Boston: Little

‘최초의 살해’<sup>20)</sup>는 희생제의를 통해 영원히 반복된다. 이야기는 대부분 사후적인 속성을 지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제의의 희생물을 절단하고 이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나누어 먹는 습속과 거인시체화생 신화가 최소한 동시에 발생했거나 희생제의의 모습을 신화가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반고신화는 살해와 절단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문헌으로 기록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인문화되었기 때문이다.<sup>21)</sup> 즉 최초의 반고신화는 뿌루사나 티아맛처럼 희생제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었을 것이다.

주지하듯 라캉에 따르면 욕망은 현실의 상징체계를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바깥으로 배제된 실재에 대한 갈망이다. 신체훼손, 식인은 사회, 국가와 같은 현실적 상징체계를 위해 음지로, 외부로, 무의식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 실재의 흔적은 이제 신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욕망은 항상 우리 곁에, 우리 내면에 존재해 왔다. 신체보시 본생담은 주인공만 석가로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대 인도의 구비전승담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신체보시 본생담은 식인, 신체훼손과 같은 원시적 습속이 현실의 상징체계 바깥으로 소외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라캉은 잔혹성, 가학성에 대한 내재적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음을 사드(Sade)를 통해 주장했는데, 사드를 칸트의 그림자, 실패작으로 파악하면서 사드에게서 느끼는 혐오감과 정서적 거부감은 오히려 그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언급했다.<sup>22)</sup> 그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사드와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나아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사드를 대면해야 한다고 말한다.<sup>23)</sup> 즉 사드의 잔혹성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근원적인 악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에 의지하여 잔혹 서사를 바라보면

Brown and Company, 1975, 2쪽. 정재서, 「동서양 창조신화의 문화적 변용 비교연구」, 『중국어문학지』 17집, 2005, 15쪽에서 재인용.

20) 르네 지라르 저, 김진식, 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0, 142~145쪽.

21) 『莊子』 「應帝王」에서 儵과 忽이 이목구비가 없는 친구 渾沌에게 구멍을 뚫어 주자 혼돈이 죽고만 이야기는 중국의 창조신화에도 ‘최초의 살해’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한다.

22) 자크 라캉 저, 홍준기의 역, 『에크리』, 새물결, 2019, 895~931쪽.

23) 타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접근은 이미 ‘건전한’ 우리가 ‘사악한’ 사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도덕적 우월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김용수, 『자크 라캉』, 살림, 2008, 67쪽. 참조.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긴 '역사'의 시간 곳곳에 잔혹하고 가학적인 스토리가 존재한다. 거칠게 생각해 보면 신체보시 본생담의 잔인한 전개는 오늘날 연쇄살인 범의 스토리를 적나라하게 다룬 영화나 드라마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근원적 악과 그로 인한 공포는 욕망의 차원을 넘어 인간 본연의 속성을 마주하게 한다. 결국 식인과 살인을 다루는 범죄영화가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사드적 욕망 때문이다.

몸을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사신 본생담이 아닌 경우에도 종종 신체를 잘라내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하고 신체를 절단당하는 고통을 매우 세세하게 묘사하여 비유의 예로 들기도 한다. 다음은 『육도집경』 권5 忍辱度無極章에 나오는 迦梨王 이야기다.

왕이 말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인욕(忍辱)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노하여서 칼을 빼어 그의 오른팔을 끊었다. 보살이 생각하였다. ‘내가 높은 도에 뜻을 두고 다투는 일이 없는데도 이 왕은 오히려 내게 칼질을 하니, 하물며 일반 백성들이랴. 원컨대 부처가 되어서 반드시 먼저 제도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그 악을 본받음이 없게 하리라.’ 왕이 또 말하였다. “너는 누구냐?” “저는 인욕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또 그의 왼팔을 끊었다. 이렇게 한 번 문고 한 번 끊어서 그의 다리를 끊고 귀를 끊고 코를 끊으니, 피가 샘솟듯 하여 흘렀으며, 그 아픔이 한량없었다.<sup>24)</sup>

보살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 가리왕은 계속해서 몸의 일부를 잘라낸다.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고통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성품을 강조하기 위해 이토록 잔혹한 수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묘사는 비단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예전에 보살이 사슴이 되었다. 힘이 무리보다 뛰어났고 인자함이 널리 덮여서 못 사슴이 사모하고 따랐다. 동산 가까운 데서 놀더니 목동이 알려서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포위하여 들어가면서 그물을 쳤다. 사슴의 왕이

24) 王曰，爾爲誰耶，曰吾忍辱人。王怒撥劍截其右臂。菩薩念曰，吾志上道與時無淨，斯王尙加吾刃，豈況黎庶乎。願吾得佛必先度之，無令衆生效其爲惡也。王曰，若爲誰乎。曰吾忍辱人。又截其左手。一問一截，截其脚，截其耳，截其鼻。血若流泉，其痛無量。浦正信注，『六度集經』，成都：巴蜀書局，2001.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너희들이 이런 액난을 당하는 것이 그 허물이 내게 있다. 내가 장차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을 건지리라.” 그물로 가서 앞의 두 발로 내리고는 말하였다. “나를 던고 뛰어오르면 너희들은 온전할 수 있으리라.” 못 사슴이 그렇게 해서 다 모면하였는데 사슴의 왕은 몸뚱이의 살이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해서 피가 샘물 솟듯 하면서 땅에 쓰러져서 겨우 숨만 활짝거렸다. 그 아픔이 말할 수 없었다. 못 사슴이 울부짖으면서 빙빙 돌고 가지 않았다. 사람의 왕이 그 사슴의 몸이 참혹하게 절단나서 피가 흘러 땅을 물들인 것을 보고 다른 사슴의 무리는 볼 것도 없이 물었다. “이것은 어찌 된 것이나?” 사슴의 왕이 대답하였다. “지조를 잡음이 착하지 못하여서 짐승의 목숨을 받았사오며, 좋은 풀을 찾아다니면서 미미한 목숨을 보전하옵더니, 이제 국경을 침범하온 죄가 더욱 무겁습니다. 몸뚱이의 살점은 비록 다 떨어져 나갔사오나 두 허벅다리왕 오장은 완전한 채로 남았사오니, 원컨대 태관에게 하루아침의 반찬으로 바치겠나이다.”<sup>25)</sup>

찢어 떨어진 살점과 ‘샘물 솟듯’ 뿜어져 나오는 피가 땅에 낭자한데, 사슴왕은 남아있는 다리와 내장을 ‘하루아침의 반찬’거리로 보시하고자 한다. 처절한 죽음의 광경과 의연한 사슴의 태도는 선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강렬한 인상을 준다.

그렇지만 모든 사신 본생담이 잔인한 신체 절단과 자극적인 소재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의 작품들은 꽤 ‘순화’된 표현을 통해 사신 보시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전에 보살은 𧇗<sup>26)</sup>이었는데, 늘 큰 자비심으로 중생을 윤택하게 했다. ……부모를 모시고 산에 살았는데, 부모가 연로하고 눈이 멀어 사마가 매우 슬퍼했다. ……어느 날 부모가 목이 마르다 하여 물을 길러 나갔다. 그때 迦夷國 왕이 산에 들어와 사냥을 하는데, 활로 사슴을 잡으려다 잘못하여 사마의 가슴에 화살이 맞았다. ……“누가 한 화살로 세 명을 죽이는가?

25) 昔者菩薩，身為鹿王，力勢踰衆，仁愛普覆，群鹿慕從。所遊近苑，牧人以聞，王率士衆合圍逼之。鹿王乃知，垂泣而曰，爾等斯厄，厥尤由我也。吾將沒命濟爾群小，鹿王就索下前兩足曰，登吾蹠出爾等可全矣。群鹿如之鹹獲免矣。身肉決裂，血若流泉，辟地才息。其痛難言，群鹿啼呼，徘徊不去。人王睹其體殘，血流丹地，不見鹿衆曰，斯者何以。鹿王對曰，執操不淑，稟命爲獸，尋求美草以全微命，幹犯國境罪應尤重。身肉雖盡兩脾五藏完具尚存，惟願太官給壹朝膳。『六度集經』，成都：巴蜀書局，2001.

26) Syāmaka 또는 Syāma의 음역. 이후 사마로 표기한다.

내 부모는 늙고 눈도 보이지 않아 내가 죽고 나면 그분들도 따라서 돌아가  
실 수밖에 없다.”<sup>27)</sup>

사마의 효성스러운 이야기는 가장 대표적인 본생담 가운데 하나로, 부모에 대한 효심을 애절하게 그리고 있다. 이야기는 죽음으로의 과정보다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닥칠 부모의 고통과 근경을 걱정하는 데 집중한다. 유교전통이 확립되었던 중국에서 사마 이야기는 효행고사와의 친연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전파되었다. 그 결과 부모를 위해 자신을 보시하는 본생담 가운데 유일하게 24孝故事<sup>28)</sup>에 당당히 고정 테마로 자리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효자의 典範으로 칭송받고 있다.

상술한 신체보시 본생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불교가 보살행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극단적인 묘사와 소재를 적극 활용했음을 확인했다. 동시에 보살행이라는 공식적인 목적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 ‘인가된 야만성’<sup>29)</sup>이라고도 할 안전한 일탈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신체보시 본생담이 지닌 이러한 서사적 특성은 불교의 중국 전래라는 상황에서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된다.

### 3. 신체보시 본생담의 유교적 전유

개자추의 이야기처럼 타인의 생명을 위해 살을 희생하는 이야기는 중국에도 전해 왔다. 周文王은 아들의 고기를 먹었고 易牙는 齊桓公의 신임을 얻기 위해 아들을 요리해 올린다. 자신의 신체를 베어내진 않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아들을

27) 昔者菩薩, 厥名曰睽. 常懷普慈, 潤逮衆生. ……將其二親處於山澤, 父母年耆兩日失明, 睽爲悲楚. ……二親時渴, 睽行吸水. 迦夷國王入山田獵, 彎弓發矢, 射山麋鹿, 誤中睽胸. ……誰以壹矢殺三道士者乎, 吾親年耆, 又俱失明, 壹朝無我, 普當殞命. 『六度集經』, 成都: 巴蜀書局, 2001.

28) 24효고사는 元 郭守正이 역대 효행고사를 選輯한 『全相二十四孝詩選集』를 칭한다. 이후 삼화를 첨부한 『二十四孝圖』가 민간에 널리 보급되면서 효를 선전하는 통속문학의 대표가 되었다.

29) 이는 루이스로부터 차용한 용어로, 그는 고대 중국에서 인가된 폭력의 계보를 추적하고 정치권력의 본질을 폭로했다. Mark Edward Lewis, *Sanctioned Violence in Early China*, New York: SUNY Press, 1990.

고기로 바친 역사 고사들은 할고와 유사한 정서가 불교 전입 이전에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할고 고사가 등장할 수 있었던 중국의 내재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고사들은 고기를 취하는 과정을 잔인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또한 왕이라는 권력을 위한, 효보다는 충을 위한 희생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감동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일상에서 매일 마주하는 부모와 자식의 그것이기 때문이다.

漢 이후 중국은 유교를 통치 철학으로 천명하고 이를 위해 각종 저서를 편찬했다. 권력은 각종 기록물로 구현되었고 『孝子傳』, 『列女傳』 등은 사람들을 유교 질서로 자연스럽게 인도했다. 국가 주도적으로 기록된 서사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따뜻한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유교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공고해진 후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다. 147년 즈음 파르티아(Parthian) 제국의 태자인 安世高 등 외국인 승려들이 洛陽에서 불교 경전을 漢譯한 이후 약 백여 년 동안 265부 411권의 불교 경전이 번역되었다.<sup>30)</sup>

본생담 역시 이 과정을 거쳐 중국인들에게 소개되었다. 유교적 맥락에서 볼 때 신체를 훼손하는 본생담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다. 낯선 종교가 들려주는 기묘한 설화 가운데 부모를 위한 보시 이야기는 그나마 수용 가능한 것이었다.<sup>31)</sup> 효자와 효행은 이미 친숙한 주제였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 본 사마 이야기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슴으로 오인 받아 화살을 맞은 후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왕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내가 아들 사마를 쏘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놀라 떨며 말했다. “내 자식을 무슨 죄로 죽였다는 것입니까? 내 아들은 마음이 인자해서 땅을 밟아도 땅이 아파할까 두려워하는 놈인데, 무슨 죄가 있어서 왕께서는 죽이셨나이까?” ..... “자식이 이미 죽었다면 앞으로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나도 곧 죽을 것이니 원컨대 왕께서 우리 두

30) 葛兆光, 『中國思想史』,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7, 378~379쪽.

31) 불교가 중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父母恩重經』과 같은 僞書를 제작했는데, 중국 고대전 설상의 효자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불교가 유교의 취지에 호응하여 중국으로의 성공적인 전입을 시도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할고 고사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보시 본생담을 변용한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늙은이를 데려다 아들의 주검 곁에 놓아 주십시오. 정말 죽었나 보고 같이 재가 되고 흙이 되겠습니다.” .....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어머니는 아들의 발을 끌어안고 입을 빨고 발을 핥으면서 한 손으로는 상처를 어루만지고 또 한 손으로는 자기 가슴을 치고 뺨을 치면서 머리를 우러르고 부르짖었다. “천신, 지신, 목신, 수신이시여, 내 아들 샤마가 부처님을 받들고 법을 믿고 성현을 존경하고 어버이에 효성하며 한없이 넓은 어짊을 품어서 덕이 초목에 미치는 줄 압니다. 만약 자식이 과연 부처님을 받들고 지극한 효성이 있어서 하늘이 아실진대 마땅히 화살이 뽑히고 중독이 소멸되어 자식이 살아나 그 지극한 효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자식의 행실이 그렇지 않다면 제 말도 성실한 것이 아니니 마땅히 죽어서 함께 재와 흙이 되게 하소서.” ..... 제석이 내려와서 그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지극히 효성스러운 아들을 내가 능히 살려 주리라.” 하늘의 신약을 사마의 입 속에 흘려 넣으니, 샤마는 홀연히 소생하였다. 부모와 본인은 물론 왕과 신하와 따라온 자들이 슬픔과 기쁨이 뒤섞이어 또 한 번 소리 내어 울었다. 왕이 말했다. “부처님을 받들고 극진한 효도를 한 덕이 이에 이른 것이로다.”<sup>32)</sup>

효성지극한 아들과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유교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부자 관계를 아름답게 표상하고 있다. 이들의 관계에 감동한 신들이 진심으로 슬퍼하고 아들은 마침내 부활한다. 모든 사람들이 효성과 기적에 감동하여 “또 한 번 소리 내어” 운다. 왕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가르침으로 귀결시킨다. “부처님을 받들고 극진한 효도를 한 덕이 이에 이른 것”이라고.

사소한 실수가 가져온 죽음이라는 엄청난 결과, 지극한 효심, 목숨을 앞세운 자식사랑, 하늘의 감동, 부활의 대단원으로 이어지는 구성과 마지막에 덧붙여진 교훈적 메시지는 잘 만들어진 교화 스토리로 손색이 없다. 샤마 이야기는 이렇게 저마다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게 된다.<sup>33)</sup>

32) 王謂親曰, .....道士子啖者吾射殺之. 親驚曰, 吾子何罪而殺之乎. 子操仁惻踏地常恐地痛, 其有何罪而王殺之. ....曰子已死, 將何恃哉. 吾今死矣, 惟願大王牽吾二老, 著子屍處, 必見窮沒, 庶同灰土. 父以首著膝上, 母抱其足, 鳴口吮足, 各以壹手捫其箭瘡, 椎胸搏頰仰首呼曰, 天神地神, 樹神水神, 吾子啖者奉佛信法, 尊賢孝親, 懷無外之弘仁, 潤逮草木. 又曰, 若子審奉佛至孝之誠上聞天者, 箭當拔出, 重毒消滅子獲生存卒其至孝之行. 子行不然, 吾言不誠, 遂當終沒俱爲灰土. ....帝釋身下, 謂其親曰, 斯至孝之子, 吾能活之. 以天神藥灌口中, 忽然得蘇. 父母及啖, 主逮臣從, 悲樂交集, 普復舉哀. 王曰, 奉佛至孝之德, 乃至於斯. 『六度集經』, 成都: 巴蜀書局, 2001.

元 이후 왕조마다 24효고사 내지는 24孝圖를 만들었다. 24명의 효자 목록은 때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었으나 劓子<sup>34)</sup>의 이름이 누락된 적은 없었다.<sup>35)</sup>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교적 색채가 열어지고 관련 부분이 삭제된다. 이는 불교설화를 유교적 목적에 전유하면서 생겨난 필연적 결과일 것이다.

돈황 변문에 수록된 이야기에는 아들이 사슴의 가죽을 덮어 쓰고 강가에 물을 길러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야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왕이라는 존엄한 인물이 '실수로' 사람을 쓰았다는 것이 불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그 사람은 신을 감동시킨 효자이고 모든 백성의 '어버이'인 왕이 효자를 '실수로'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대 이후의 이야기에서는 왕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사냥꾼이 왕을 대체한다. 효자의 죽음 역시 불편했는지 순화된다. 사냥꾼은 사마를 죽이지 않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만 가진 것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화살 하나로 세 사람을 죽였다는 비극적인 대사는 사라지고 이어지는 불교적 기적과 부활의 감동 또한 삭제된다. 사마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불교의 본생담이 아니라 유교의 효자전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대 이후의 24효고사에서 사마는 사슴 젖을 마시고 싶다는 부모의 말을 듣고서 사슴 가죽을 입고 숲으로 간다. 물보다 구하기 힘든 사슴 젖은 효자 사마를 더욱 부각시킨다. 줄거리는 간략해지고 효를 표현하는 요소들은 정교해진다. 그 선택과 첨가의 기준은 철저히 유교의 효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가이다.

33) 사마 본생담은 수자티 본생담과 달리 잔인한 신체훼손의 장면이 없다. 그렇지만 부모를 위해 목숨을 잃게 되는 구조는 같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잔혹한 서사적 장치가 이야기로서의 매력,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사마 이야기의 경우 그러한 구체적인 자극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수자티 이야기가 다른 형태의 이야기로 변형되어 후대에 전해지는 것을 볼 때, 사마 이야기 정도의 순화된 자식의 죽음은 유교적 맥락에서 직접적으로 수용가능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4) 劓子は 睽子로 전해져 오던 것이 바뀐 것이다. 이들을 서로 다른 두 계통의 이야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 程毅中, 『敦煌本“孝子傳”與睽子故事』, 『中國文化』 第五期, 1991, 152쪽.

35) 『敦煌變文集』에 수록된 『故園鑿大師二十四孝押座文』은 원대의 24효고사의 전신으로 추정되는데, 사마 본생담은 이 돈황본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자료가 훼손되었기 때문이지 목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程毅中, 『敦煌本“孝子傳”與睽子故事』, 『中國文化』 第五期, 1991, 150~151쪽을 참조.

사마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모를 봉양했던 수자티 이야기 역시 중국인들에게 특별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부모가 주신 몸을 훼손하는 것은 유교의 효와 정확히 대척점에 있지만 그 의도를 이해하고 나면 잔혹함과 효심이 비례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는 역시 변화한다. 하나뿐인 아들이 살점 없이 죽어가는 과정, 처음에는 주저하나 나중에 관절 속에 숨은 살까지 발라내는 백정 같은 아버지의 행위, 눈과 혀 등을 살뜰히 도려내 아들에게 건네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부자 관계를 기초로 확장해 나가는 유교철학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한 것이었다. 익숙한 주제인 효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는 너무나 잔혹하고 현란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야기로서의 매력은 충분하지만 이것을 날 것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유교 질서를 위협할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과감하게 각색되고 비슷하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다.<sup>36)</sup>

수자티 본생담과 같은 불교설화들이 전래된 이후 점차 중국에서는 割股로써 부모를 봉양하는 이야기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할고는 문자 그대로 허벅다리를 베어 내는 것이고 할고 고사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뜻한다. 초기에는 허벅다리 살을 주로 취했지만 후대로 가면서 경쟁적으로 간, 쓸개, 눈 등 다양한 인체 부위를 베어내었다.

唐代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할고가 하나의 치료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했고宋代에는 나라에서 상을 줄 정도로 권장되었다.<sup>37)</sup> 그러자 엄청난 수의 할고 행위가 실행되었고 목숨을 잃는 폐해가 끊이질 않았다. 明清 시기에는 국가적으로 금지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효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근절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36) 金寶祥은 할고 고사가 지배계층이 유교적 통치관념을 선전함으로써 생겨났다고 주장했지만 할고 고사의 대부분이 구술적 요소를 다분히 지니고 있고 본생담이 전래되던 시기에 이미 유교적 정치사상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배계층이 이야기를 제작했다는 견해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듯하다. 오히려 민간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할고 고사가 포상의 방식을 통해 정치적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隋書·經籍志』에 의하면 불교 설화의 유입과 함께 서역의 의학서적들도 중국으로 수입되었는데, 여기에는 인육을 포함한 인체 부분들이 약재로 기록되어 있었다. 따라서 할고 고사는 단순히 통치계층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기보다는 새로운 종교, 지식의 유입과 중국의 유교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7) 상을 받기 위해 할고를 행하는 수가 많아지자 宋 中期에 이르러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할고 행위의 유무를 판단했다.

추세는 民國 시기까지 이어졌다.

正史에 기록된 최초의 할고 고사는 武則天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友貞이 20살 때 어머니가 병세가 심했다. 의원이 오직 사람고기를 먹어야 차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은 사람고기를 구해 치료할 수 없음을 깨닫고는 자신의 허벅다리를 베어 어머니에게 올렸다. 어머니의 병이 곧 나았다. 무척천이 이를 듣고 그 집에 가 살펴보게 하고 특별히 旌表를 내렸다.<sup>38)</sup>

이는 할고 행위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행해졌음을 시사하며, 황제가 정표를 하사하는 결말을 더한 것은 이 행위가 제도적, 사회적 승인과 인정을 획득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포상이 동반되지 않은 다른 효자담에 비해 비교적 후대에 생겨난 이야기임을 추측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할고 고사는 간단한 구조를 지니고 그 길이도 길지 않으며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수자티 본생담의 축약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대 이후 주로 언급되는 할고 고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王武子妻 고사인데, 24효고사에 포함되어 있는 왕무자처 할고 고사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야기인 듯 보이나 그 구조는 수자티 본생담과 같다. 또한 돈황 변문에 이미 등장하고 있고 宋金の 도상에서도 보인다.<sup>39)</sup> 그렇다면 최소한 唐代에 왕무자처의 이야기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할고 고사로서 상당한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sup>40)</sup> 왕무자처 고사와 수자티 본생담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전무하다 할지라도 수자티 본생담으로 인해 시작된 할고의 인기가 왕무자처 고사에 집약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38) 友貞弱冠時，母病篤，醫言唯啖人肉乃差。友貞獨念無可求治，乃割股肉以飴親，母病尋差。則天聞之，令就其家驗問，特加旌表。『舊唐書』卷192「王友貞傳」，北京：中華書局，1975，5118쪽.

39) 程毅中，「敦煌本“孝子傳”與睽子故事」，『中國文化』第五期，1991，150쪽.

40) 왕우정 고사와 구조와 내용이 유사하지만 정표 부분이 없는 왕무자처 고사가 좀 더 이른 이야기로 추정된다. 정사에 기록될 정도의 이야기라면 그 시기를 대표하는 사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우정 고사가 초기 24효도 목록이나 역대 왕조에서 생산한 24효 고사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는 것은 수자티 본생담이 민간에서 널리 보급된 할고 고사가 왕무자처 고사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왕무자처 고사는 여타 다른 할고 고사들과 유사하게 수자티 본생담에 비해 간단한 구조를 가진다. 왕무자는 징발되어 10년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그 어머니는 병환중이다. 왕무자의 처는 사람 고기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의원의 말을 듣고 고민하다 자신의 허벅다리를 취해 탕을 끓인다. 시어머니는 탕을 먹고 바로 완쾌한다. 수자티 본생담에 비해 단순해 보이지만 이야기의 구조는 같다. 餓死를 면하기 위해 살점을 제공했던 수자티와 달리 왕무자의 아내는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살을 베어내는데, 이러한 설정을 통해 이야기는 야만적인 동물성을 희석한다. 마찬가지로 길고 세밀하게 묘사했던 살점을 베어내는 장면은 단조롭게 축약시켰다. 주목할 점은 태자인 아들이 아닌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다리 살점을 베어낸다는 것이다. 이 간단한 설정은 유교적 덕목을 집약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남편이 장기간 부재한 상황에서 집안을 단속하고 생계를 이어나가는 외중에 중환 중의 시어머니를 위해 허벅지 살을 끊어내는 며느리는 유교 질서가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대 중국인들은 신체보시 본생담의 잔혹한 묘사 장면과 불편한 가족 관계가 품고 있는 야만의 흔적을 유교적인 관점에서 편집하여 효 관념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4. 식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지식의 형성

고대 중국에서도 신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상상력은 존재했다. 살인과 식인은 인류보편적인 금기였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고대 중국인에게 신체 훼손과 식인 행위는 야만의 것에 속했다. 문명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관련 행위는 주로 복수와 형벌의 결과다. 彭越의 몸이 짓갈로 담가져 제후들에게 본보기로 배분되었던 것처럼 문명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훼손과 식인은 야만의 것을 능가할 정도로 잔혹했지만 제도적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인가된 폭력(sanctioned

violence)<sup>41)</sup>이었다. 복수와 형벌의 대상이 먼저 야만적 행위로 문명을 위협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禮記』「曲禮」에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살인을 공식적으로 허락하고 있다.<sup>42)</sup> 『搜神記』의 三王墓 이야기는 아버지의 복수를 그로테스크하게 그리고 있다. 곳곳이 선 채로 스스로 목을 베어 복수를 약속한 협객에게 바치는 아들의 모습은 잔인하면서도 비장하다. 이러한 이야기는 유교적 전통에서 합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수준의 것들이었다. 불교가 유행할 무렵 지괴소설들은 엽기적인 신체 절단의 모티프를 종종 활용했지만<sup>43)</sup> 그것은 대부분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형태였고 묘사 역시 간결했다.

그런데 신체보시 본생담이 본격적으로 전래된 후 신체 훼손과 식인에 대한 인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야만의 것이었던 식인과 잔인한 훼손이 부자 관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효심이라는 당위성에 힘입어 사람들에게 빠르게 수용되었다.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야기 자체로서의 매력 또한 작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할고라는 행위를 실천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식인은 더 이상 야만의 것이 아니라 당당히 문명의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과정에서 할고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민간에서는 이미 효자라면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필수적 행위로 고정되었다. 왕우정의 사례처럼 나라에서 권장하면서<sup>44)</sup> 할고는 상당히 긴 시간동안 대유행하게 된다.

이야기에서 비롯된 인식의 변화는 나아가 의약학적 지식에도 변동을 가져왔다. 가장 오래된 중국의 의약서적이라 할 수 있는 『神農本草經』에는 인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인체의 일부가 약재로서 기록되어 있다. 머리카락, 털, 손톱, 치석 등과 같이 제공자의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唐 玄宗 때 편찬된

41) Mark Edward Lewis, *Sanctioned Violence in Early China*, New York: SUNY Press, 1990.

42) 父之讐, 不共戴天之讐.

43) 김지선, 「志怪에 나타난 기괴함의 미학」, 『중국소설논총』 22권, 2005, 57-81쪽.

44) 妻孝子順孫、義夫節婦、及割股奉親。比來州府免課役、不由所司、今後請應有此色、敕下後、亦須先牒當司、如下承戶部文符、其課役不在免限、從之。『唐會要』卷58, 北京: 中華書局, 1955, 998쪽.

『本草捨遺』는 인육을 공식적으로 약재로 기록하고 있다.<sup>45)</sup> 『본초습유』에서 최초로 인육을 인정한 이후 인육, 간, 피 등 다양한 인체 부분이 약재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도 수많은 할고 실행을 통해 인육의 의학적 실체에 대해 경험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후대의 할고 고사일수록 살점을 베어내기 전후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경험적 지식을 애써 무시하고 하늘의 감동을 자아내기 위한 노력이었을 것이다. 노역과 세금을 면제해 주는 국가적 혜택 때문인지 아니면 플라시보 효과 때문인지 할고는 계속해서 실행되었다. 허벅지 살은 일반적인 인육 약재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더 귀한 약재를 위해 경쟁적으로 간, 쓸개, 눈 등을 잘라냈다. 그리고 그 회소성과 채취의 난이도로 인해 인육을 비롯한 각종 장기들은 마침내 최고의 약재로 등극하게 된다.

가다머(Hans-Georg Gadamer)에 의하면 모든 이해는 ‘역사적’이고 모든 지식은 상황적, 맥락적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이해는 그것을 수용하는 당사자의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의미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식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sup>46)</sup> 이방인의 식인은 절대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이 나의 문명이 되었을 때 지식이 될 수도 있다. 이야기는 이렇듯 단순히 스토리에 그치지 않고 서사적 매력을 품은 채 지식으로 변화한다. 이것은 수많은 할고의 희생자를 낳았고 明代에 이르러서야 간접적으로 의약지식에서 제외된다. 李時珍은 『本草綱目』 人部に 37종의 인체 약재를 기록했다. 『본초강목』의 집필 목적이 이전 시기의 의약서적을 종합, 정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육뿐만 아니라 뼈, 쓸개, 피를 기록했지만 그는 이것이 仁에 위배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분명히 적고 있다.<sup>47)</sup>

45) 唐時陳藏器著本草捨遺, 謂人肉治影疾, 自是民間以父母疾, 多割股肉而進. 『新唐書』卷195, 北京: 中華書局, 1975年, 5577쪽.

46)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저, 임홍배 역, 『진리와 방법2』, 문학동네, 2012. 참조.

47) 後世方伎之士, 之於骨肉膽血, 咸稱爲藥, 甚哉不仁也. 李時珍, 『本草綱目』, 文淵閣 四庫全書影印本,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 5. 나오며

지금까지 신체보시 본생담의 대표 고사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유교적으로 어떻게 전유되었는지 고찰해 보았다.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보살행을 쉬운 이야기로 풀어 쓴 본생담은 석가의 전생을 통해 보시와 인내리는 종교적 주제로 전달한다. 그 중 가장 극적인 것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사신 본생담이다.

사마의 이야기는 죽어가면서까지 부모를 극진히 생각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도 잘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유교적 효 정서와 맞닿아 있다. 중국인들은 이 이야기에서 불교적 색채를 덜어내고 유교적 현실에 적합하게 편집하여 불교의 본생 고사가 아닌 유교의 효자 고사로 활용하였다.

수자티 본생담은 잔혹한 신체 훼손과 식인의 과정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서사적 특성은 궁극적으로 불교적 감동과 깨달음을 위한 것이지만 근원적인 공포와 식인 금기로부터의 일탈이라는 욕망을 자극한다. 또한 라캉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본연적 속성인 잔혹성, 가학성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신체보시 본생담은 중국 토착의 유교문화와 조우하면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내는데, 부모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살을 베어내는 할고 고사가 바로 그 결과물이다. 많은 할고 효자담이 생산되었고 지면 밖 현실에서는 할고가 실제로 행해졌다. 대다수의 할고 고사는 왕무자처 고사로 대표되었고 그 구조는 수자티 본생담과 유사하다. 유교적 관점에서 불편한 요소들은 과감히 삭제되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들이 첨가되었다.

본생담 유입 이전의 중국의 식인과 신체 훼손에 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야만과 문명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근거했다. 식인은 야만의 것이었기에 문명의 제도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훼손과 식인은 야만적 행위를 한 대상에게만 가해졌고 지극히 합법적인 폭력이었다. 그러나 본생담의 유입 후 신체 훼손과 식인은 더 이상 야만적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보통 사람들의 것으로 이동한다. 할고 고사와 그 사례가 급증하고 나라에서는 할고를 행한 효자,

효녀에게 상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은 송대에 극심했고 근대까지 이어졌다. 魯迅의 『狂人日記』에서 광인이 느끼는 공포나 『藥』에 나오는 人血饅頭는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유행과 실천을 만들어 내고 그러한 상황과 맥락은 인육을 의약학적 지식에 당당히 편입시켰다. 공식적인 지식으로의 인정은 그 뒤로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어 냈고 명대에 이르러서야 간접적으로 배제되었다.

결국 신체보시 본생담의 유교적 전유와 의약학적 지식으로의 변용은 불교의 중국 도착화 과정, 나아가 유불 습합, 삼교합일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 〈參考文獻〉

- 『舊唐書』卷192 「王友貞傳」, 北京: 中華書局, 1975년.  
 『唐會要』卷58, 北京: 中華書局, 1955년.  
 『本草綱目』, 文淵閣 四庫全書 影印本,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년.  
 『新唐書』卷195, 北京: 中華書局, 1975년.  
 『六度集經』, 成都: 巴蜀書局, 2001년.  
 『禮記·曲禮』  
 慧皎, 湯用彤校注, 『高僧傳』, 北京: 中華書局, 1992년.  
 葛兆光, 『中國思想史』,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7년.  
 김용수, 『자크 라캉』, 살림, 2008년.  
 자크 라캉 저, 홍준기의 역, 『에크리』, 새물결, 2019년.  
 르네 지라르 저, 김진석, 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6년.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저, 임홍배 역, 『진리와 방법2』, 문학동네, 2012년.  
 김지선, 「志怪에 나타난 기괴함의 미학」, 『중국소설논총』 22권, 2005년.  
 南愷時, 「中國的割股奉親: 絲綢之路的舶來品?」, 『中國俗文化研究』 第一期, 2017년.  
 呂昂, 「從捨身本生看佛教倫理中國化」, 『五台山研究』 第4期, 2015년.  
 임명옥, 「中國 割股 孝行故事 小考」, 『中國學論叢』 Vol.9, 2000년.  
 程毅中, 「敦煌本“孝子傳”與睽子故事」, 『中國文化』 第五期, 1991년.  
 정재서, 「道教 說話의 政治的 專有와 民族 正體性 - 韓·中·日 3國의 경우」, 『도교문화

연구』 31집, 2009년.

\_\_\_\_\_, 「동서양 창조신화의 문화적 변용 비교연구」, 『중국어문학지』 17집, 2005년.

\_\_\_\_\_, 「동아시아 문화담론과 성: 효녀서사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32집, 2002년.

조남욱, 「儒家 孝論과 肉身 孝行의 問題」, 『儒教思想研究』 Vol.37, 2009년.

蔡偉堂, 「敦煌壁畫中的睺子本生故事畫」, 『敦煌研究』 第5期, 2004년.

Kristen Guest, *Eating Their Words: Cannibalism and the Boundaries of Cultural Identit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1.

Mark Edward Lewis, *Sanctioned Violence in Early China*, New York: SUNY Press, 1990.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 <https://abc.dongguk.edu/>

〈Abstract〉

Confucian Appropriation of Self-sacrificing Jakata  
and the Change in Perception

Lee, Yoo-Ra

Jakata story based on the folk tales of ancient India features Buddha's distributing charity and perseverance in his previous life. Among them, the self-sacrificing stories show us the extreme sacrifice of one's body. The Jakata stories about giving someone one's flesh are a big part of the whole Jakata stories. When it entered in China, in contact with Confucian culture, it created a new and interesting aspect. This paper examined the narrative features of the self-sacrificing jakata tales, and grasped the underlying desire and the nature of human beings, furthermore looked at the process in which Shāma jakata and Sujāti jakata were appropriated in the Confucian context. As a result, the flesh-sacrificing story, through describing a cruelly damaged body and cannibalism, stimulates the original fears as a human being and the desires for violating a taboo on cannibalism. However, because of this feature, the stories attracted attention for its charm as a story, but those elements do not fit with Confucian sentiment, so they

change into different forms. The cruel contents are purified, and the ideal relations between father and son are emphasized. In this process 割股 filial piety stories, which is about cutting thigh flesh for curing parents, are produced. As 割股 stories get popular, in reality there are many filial piety to practice 割股, and 割股 soon becomes essential behavior as a filial son. Finally, 割股 pandemic has expanded to the medical field, so human flesh was officially recognized as the best medicine in the Tang dynasty. This series of streams means that the ancient Chinese perception of cannibalism has changed. The cannibal, which was basically savage, naturally transformed into a civilization.

Key words: self-sacrificing Jakata, ge-gu(割股), cannibalism, desire, violation

이 논문은 2020년 4월 10일에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0년 5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